

1930년대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 '朝鮮醫報'를 중심으로

The Medical Scholarly Communication in the 1930s : an analysis on the *The Korean Medical Journal*

정경희(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Jung Kyung-hee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본 논문은 1930년에 창간하여 당시 한국인 의학연구집단의 중심적 학술커뮤니케이션 장을 담당하였던 조선의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조선의보가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써 한국에 서양근대의학이 도입되어 교육되는 과정을 살피고, 1930년 이전까지 의학자집단의 형성과 소식지 및 학회지의 발간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의보의 발간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의보를 발간하였던 조선의사협회의 결성과 그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본격적 의학 학술지로써의 조선의보의 면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저널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분석하여 당시 의학적 관심과 핵심적인 의학 연구자 집단을 구성해보았다.

서론

학문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환경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변화·발전하며 연구자 집단은 그러한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론, 새로운 관점을 생산해내고 이것을 시·공간적으로 또는 주제적으로 동일한 혹은 상이한 집단의 학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것이 과학과 학문의 기본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저널은 이러한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학술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써 저널은 과학이 전문화되는 과정과 함께 출현하게 된다. 최초의 학술잡지라고 불리는 영국왕립학회의 철학회보(*Philosophical Transaction*)(1665년) 등 문학과 과학분야의 학술잡지가 생겨난 것은 17세기 중반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학술잡지, 학술논문은 새로운 지식의 발표라는 의미에서의 학문성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는 다른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학술잡지가 출현하게 된 것은 과학의 전문화가 확립되었던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였다. 이때 비로소 근대적인 성격 즉, 학문적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공적인 논쟁의 장으로써 저널이 출현하였다.

의학 학술잡지 역시 의학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태어났다. 근대의학이 지식체계 및 방법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 배타적 전문직으로서의 '의사' 지위의 확보 및 의학교육제도의 개혁, 의학과 보건의료의 공공성(公共性) 등의 근

대성을 확립하게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이다. 이 시기에 각종 의회와 학술지가 탄생하게 된다. 이 학술지들은 학문연구성과의 공유와 교류라는 속성을 가지면서 대표적인 의학 학술커뮤니케이션 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에 이르러 한국인에 의한 본격적인 의학학술지인 *朝鮮醫報*가 출현하게 된다. 이것은 서양 근대의학 도입 이후 의학교육제도의 정착과 의사 및 의학자들의 지위 확보라는 한국 내에서의 의학의 근대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30년에 창간하여 당시 한국인 의학연구집단의 중심적 학술커뮤니케이션 장을 담당하였던 조선의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조선의보가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써 한국에 서양근대의학이 도입되어 교육되는 과정을 살피고, 1930년 이전까지 의학자집단의 형성과 소식지 및 학회지의 발간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의보의 발간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의보를 발간하였던 조선의사협회의 결성과 그 성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본격적 의학 학술지로써의 조선의보의 면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저널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분석하여 당시 의학적 관심과 핵심적인 의학 연구자 집단을 구성해보았다.

1. 조선의보의 출현 배경

1.1 근대서양의학의 수용과 발전과정

1876년의 문호개방 이래 조선 정부와 재조·재야 지식인들의 근대서양의학과 보건위생술에 대한 관심 속에서 서양의 우두술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더불어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서양식 병원인 재증원이 탄생하였다. 조선 정부는 근대서양의학과 공중보건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담당할 의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1885년에 설립한 재증원에 그러한 교육기능을 부여하였지만 의도와 희망과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재증원에서의 의학교육이 의사 양성이라는 점에서 일단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정부와 지식인들의 노력은 이어졌다. 특히 갑오 을미 개혁 연간인 1895년 하반기부터 의학교육과 대민진료를 담당할 의학교 및 그 부속병원 설립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수년이 지난 1899년에야 정부는 정규의과대학이라고 할 의학교를 설립하여 1902년부터 우리나라에 최초로 근대서양식 의사를 배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의학교는 1908년까지 총 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1907년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어 더 이상의 졸업생은 배출되지 않았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에서는 졸업생을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으며, 1910년 일제강점 직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의학교도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되었다. 의학강습소에서는 1915년까지 158명의 졸업자를 배출하였다.

한편 일제가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5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어느 정도 체계를 잡히게 되자 한국에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부속의학강습소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의전)로 승격되었다. 이후 경의전에서 1930년까지 527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또한 민립대학 설립운동 무마책으로 총독부는 1924년 경성제국대학관재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경의전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난 후인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이하 경성제대 의학부)가 설치된다. 경성제대 의학부 전체 학생 중에서 한국인의 비율은 26.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1930년까지 한국인 졸업생수(첫회)는 겨우 12명이었다.

앞서 언급한 관립의학교육기관 이외에 사립대학으로써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 의전)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1908년 처음으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뒤 1911년 제2회, 1913년 제3회를 배출하고 1914년 이후에는 매해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세 학교 이외에 평양과 대구에도 의학교육기관이 있었다. 1923년 평양자혜의원 부속 사립의학강습회와 대구자혜의원부속 사립의학강습소에서 각각 전문학교로 승격된 독립평양의학전문학교(1933)와 대구의학전문학교(1933)가 그것이다. 또한 1928년 사립여자의학강습소에서 1938년 전문학교가 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의학교의 설립에서부터 1930년대

까지는 한국에서 서양의학교육제도가 정착되었던 시기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제도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의학교육기관에서 점차 많은 수의 의사가 배출되어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와 의학자집단이 형성되고 그들의 지위가 확보될 수 있었다. 비록 지식체계 및 방법에 있어서 이미 근대성이 확보된 서양의학을 도입하였지만, 교육제도와 의학자집단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체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에 의한 전문 의학학술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1.2 의학 단체의 조직 및 학술지 발간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조선에 거주 하였던 일본인들의 병원설립 및 서양 선교사들의 의료선교사업 등을 통해서였다. 의학교육의 시 또한 이 세가지 도입경로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관에서 설립한 의학교와 선교사들이 영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의학교육이 시되었으며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는 그들의 영향 아래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의학단체의 조직과 학술지의 발간 역시 이러한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최초의 의사단체는 1905년에 결성되었다. 당시 경성에 있는 일본인 의사 7명이 조직한 '京城醫師會'가 그것이다. 3년 후인 1908년 10월에는 대한의원의 일본인 의사들이 '鷄林醫學會'를 결성하였다. 이 두 모임은 한국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일본인 의사단체였다. 계림의학회에서는 이듬해 4월 한국의학회보를 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한편 1908년 11월에는 한국인들이 주축이 된 '醫事硏究會'가 창립된다. 이 연구회는 시기적으로 의학교 마지막 졸업생 배출(1908년 7월) 직후에 결성되었다는 점과, 의학교의 교관 및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의학교 폐교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계림의학회가 창립된 직후에 결성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항하여 조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연구회가 일본인들에 의한 '朝鮮醫學會'(1911.4) 결성 직전에 강제적으로 해산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의사연구회의 존재가 조선의학회 결성에 방해가 될 정도의 조직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의사연구회는 매월 토론회를 가졌으며, 1909년 4월 임원회의 결의로 의사법 제정반포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즉 학술적인 활동 및 의사집단의 권익보호에도 참여하였던 단체였다. 그러나 일제강점 직후인 1910년 10월 강제로 해산되었다. 의사연구회는 2년여간 존속하였던 최초의 한국인 의사집단으로써 학술지나 회보를 발간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漢城醫師會' 및 '朝鮮醫師協會' 결성에 밑거름이 된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의사연구회가 강제로 해산된 직후인 1911년 4월에는 일본인이 주도한 본격적인 학술단체인 조선의학회가 결성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일문으로 된 기관지인 '朝鮮醫學會雜誌'가 발간되어 1943년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한국에서 발

간된 최초의 본격적인 의학학술지였으나, 발간과 이후 학술활동을 일본인들이 주도하였으며, 한국인의 참여는 비교적 미미하였다.

이 시기에 지역별 의사단체도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15년 한성의사회가 창립된 이후 평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한 '平壤醫師會'와 일본인들에 의한 '箕城醫師會'가 창립되었고, 원산 등 다른 지방에서도 지역 의사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중 한성의사회에서는 1932년 漢城醫師會報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1910년대 후반부터는 의학교육기관에서 전문학술지가 발간되기 시작한다. 1918년에는 경의전에서 *Mitteilungen aus der Medizinischen Hochschule, Akademie zu Keijo*를 발간하였다. 이후 이것은 경성제대 의학부가 개설됨에 따라 경의전과 경성제대 의학부 교직원들이 연합하여 발간한 *Acta Medicinalia in Keijo*(1928)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두 호(제11권, 제12권)만 발간되고 폐간된 뒤 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즉, 경성제국대학에서는 *The Keijo Journal of medicine*(1930)을 경의전에서는 京城醫學專門學校紀要(1931)를 각각 발간하였다.

한편 1930년 2월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전국적인 규모의 의사단체인 조선의사협회가 결성되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기관학술지인 *조선의보*가 창간되었다. *조선의보*는 1937년 제7권까지 계간으로 발간되다 일제에 의한 조선인 의사의 해산종용과 법적규제와 함께 폐간되었다. 이 학술지는 한국인이 주도하여 만든 최초의 의학학술지로서 한국에서 서양의학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몇몇 의학단체와 학술잡지의 영향 아래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의사협회와 *조선의보*는 해방 이후 '대한의학협회'가 형성되고 *대한의학협회회보*가 발간될 수 있었던 힘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1930년대에 발간된 학술지로서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The Journal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1933)와 경성제대 의학부 崙井내과교실의 崙床內科學(1933), 같은 학교 소아과동우회의 城大小兒科雜誌(1933), 대구의학전문학교의 大邱醫學專門學校雜誌(1939) 등이 있다.

2. 조선의사협회와 조선의보

2.1 조선의사협회의 결성

조선의사협회는 1930년 2월 21일 창립된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인 의사들 모임이었다. 당시는 일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앞세웠던 內鮮一體란 강압수단이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다. 이 때에 교직에 종사하던 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브란스 의전 강당에서 조선의사협회를 발족시키고 박계양 간사장(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박계양 간사장은 의학교 제4회 졸업생으로써 1924년 한성의사회의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조선의사협회가 의학교 관련 인사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던 의사연구회 및 한성의

사회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원으로 세브란스 의전과 경의전에 재직중이던 한국인 교수들이 골고루 참가했고, 경성제국대학 제1회 졸업생도 간사를 맡을 정도로 참가범위가 넓었다. 이들은 9월 20일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월에는 회지인 *조선의보*를 창간하였다.

1931년 봄에 열린 제2회 총회에서는 입회비 1원, 연회비 3원을 회원들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의학장학회를 설립키로 했다. 1933년도 총회에서는 회세확장을 위하여 평양,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고 경성제대 의학부 및 각 의학전문학교 재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외국 의사회와 학술지를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1939년 4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외과학회에 한국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활동을 방해하였던 일제는 1939년 가을 태평양학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앞세워 협회를 해산시켰다. 해산당할 당시의 회원수는 450명이었고 그동안 학술대회 9회, *조선의보* 통권 24호를 발간하였다. 조선의사협회는 *조선의보*를 발행하는 등 학술활동에도 힘쓰며 조선인 의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일제강점기 동안의 대표적인 의사단체였다고 볼 수 있다.

2.2 조선의보

조선의사협회는 중점적인 사업의 하나로써 1930년 11월 기관지인 *조선의보*(The Korean Medical Journal)를 창간하였다.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결성된 최초의 한국인 의사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글로 된 최초의 의학학술지였다.

의학교의 졸업생 배출 이후 세브란스 의전과 경의전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인 의사들을 배출하여 1930년 당시 정규교육을 마친 의사가 천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되었으며 일부는 인성의사로 활동하였다. 당시에 이미 조선의학회잡지가 있었으나 이는 주로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발표장이었으므로 한국인 연구자들의 발표는 비교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Mitteilungen aus der Medizinischen Hochschule, Akademie zu Keijo*는 경의전에서 발간하였던 교내 학술지였으므로 일반 연구자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0여년에 걸쳐 배출되었던 한국인 의사들 천여명을 위한 단체와 이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학술집단 및 학술지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0년 *조선의보*가 창간되었다.

*조선의보*는 창간호에 평균 4페이지 정도의 논문이 17개가 실려있으며, 학회지 뒷편에 회보, 입회금영수자 명단, 그 해 회비연수사항, 의학월례회 개최나 외국잡지발간동향, 조선의학회총회개최사항 등의 잡보와 회원동정을 실고 있으며 1930년 8월 12일 당시 143명의 회원명부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서 원고기고주의사항을 두어 기고하는 원고의 종류를 원저, 종설,

임상실험 및 초록으로 구분할 것과 원저에는 반드시 500어 내외의 초록을 외국문 원저는 600자 이내의 조선문초록을 부가할 것을 알리고 있다. 또한 원고 및 구두점에 대한 사항과 문중의 숫자기록에 대한 사항, 별쇄를 원할 경우 실비를 요한다는 사항과 원고게재순서 및 교정은 편집자에게 일임할 것과 원고를 협회로 우송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고료 안내와 발간일자, 편집자, 발행자, 인쇄자, 인쇄소, 발행소에 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조선의보는 창간호부터 학술지로써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학술지에 기고할 한 기고자들과 편집자들이 이미 학술활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출발한 조선의보는 1930년 제1호가 발간되고 그 다음해인 1931년 2, 3호가 발간되었는데 이것을 합하여 제1권으로 취급하였다. 이후 1932-1933년에는 4개호씩 발행되었으며, 1934-1936년에는 3개호씩 1937년에는 4개호가 발간되어 8년간 총 24개호를 발행하였다. 1937년 일제로부터 발간중지를 종용받아 중단되기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정확한 간격으로 출간한 것으로 보아 학술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적·경제적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보가 정확하게 몇부가 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창간 당시의 회원수가 143명이었고 1939년 조선의사협회 해산 당시 회원수가 540명이었음을 감안할 때 회원수에 준하는 부수가 발간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 조선의보의 내용분석

조선의보에는 원저, 임상실험, 종설, 강연, 잡찬 등으로 구분되어 논문이 실렸으며, 이 중 원저는 초록과 참고문헌까지 제시되어 있는 형식을 갖춘 논문이었다. 중단될 때까지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실렸던 논문은 모두 114편이다. 이 논문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목을 통하여 주제분석을 하였으며, 조선의보를 구성점으로 어떠한 학술집단이 형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저자의 소속기관을 분석해 보았다.

3.1 주제분석

조선의보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임상외과학과 기초의학분야로 구분하면 각각 69편과 45편으로 비슷한 편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외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는 것은 내과분야의 논문인데 두 편의 원저 외에 종설이 4편, 임상실험 보고가 9편이 게재되었다. 이 중 결핵을 다룬 논문이 가장 많으며, 황달 및 위장질환 등에 대한 논문 등이 발표되었다. 내과 다음으로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과분야의 논문은 1편의 원저를 제외하면 모두 임상실험 부분에 게재되어 있다. 이들은 두개골수염, 유문협착증, 척추염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산부인과 분야는

임신중절술, 산욕열, 산부인과 질병진료에 대해 임상실험과 종설의 형식으로 7편이 발표되었다. 소아빈혈과 백일해에 대한 소아과 분야와 논문도 7편과 백내장 및 녹내장 등에 대한 안과 논문도 7편이 발표되었다. 이 외에 치의학 6편, 피부과학 3편, 비뇨기과학 2편, 신경과 및 이비인후과 각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초의학분야에서는 병리학 관련 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4편의 논문이 과민증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들 논문 중 10개가 원저 부분에 게재되어 전체 분야 중에서 원저 형식의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분야였다. 약리학 분야 역시 원저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으며(8편), 한약의 효력과 조선인삼 및 약물작용에 의한 구토 이외에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생리학 분야의 논문은 8편이 발표되었으며 손기정의 신체검사학적에 대한 논문과 전류비도현상, 근수축과 관련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이 외에 해부학 4편, 미생물학 3편, 기생충학과 법의학 논문 각각 2편, 생화학 및 예방의학 논문이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논문발표 수

분야(임상외학)	논문수	분야(기초의학)	논문수
내과	19	병리학	13
외과	16	약리학	11
산부인과	7	생리학	8
소아과	7	해부학	4
안과	7	미생물학	3
치의학	6	기생충학	2
피부과	3	법의학	2
비뇨기과	2	생화학	1
신경과	1	예방의학	1
이비인후과	1		
합계	69		45
		총 114개	

3.2 저자분석

조선의보에 게재된 논문은 주로 대학에 있는 전문 연구자 및 연구생들이 발표한 것이었으나 그 외에 각 병원에서 활동하는 임상사들의 논문도 일부 게재되었다. 전체 114편의 논문 중 대학 관련 인물이 발표한 논문은 88편이었으며,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과 신문이 밝혀지지 않은 발표자들의 논문은 26편이었다.

1930년대 의학관련 학교는 사립 세브란스 의전과 경성제대 의학부, 경의전이 있었다. 이 중 43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곳은 세브란스 의전이며, 다음으로는 39편을 발표한 경성제국대학이다. 경의전 소속인물이 발표한 논문은 모두 6편으로 가장 적는데 이것은 경의전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기요를 발간하고 있었으므로 발표논문 수가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논문 중 70% 이상이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것으로 보아 조선의보를 통하여 학술활동을 하였던 집단의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적십자조선본부병원에서 발표한 5편의 논문 이외에 전국 각 병원의 임상사들 통하여 조선의보가 단지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운영되었던 학술지가 아니라 전국의 각 병원에서 활동하는 임상사들도 참여하였던 종합적 학술지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보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전문연구자들과 비공식연구집단인 임상사들을 연결할 수 있었던 학술적·사회적 연결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보에 발표된 저자들의 소속기관과 논문편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논문발표자의 소속기관과 논문편수

병원	논문수	학교	논문수
일본적십자사조선본부병원	5	세브란스 의전	43
재령제중병원	2	경성제대	39
경성부민병원	2	경의전	6
강원도립강릉의원	2		
용산철도의원	1		
군산부외관정리주식회사 웅본농장자혜진료소	1		
경북대구동산병원	1		
경기도립수원의원	1		
진주배드병원	1		
평북후창군동홍계성의원	1		
기타	9		
계	26		88
총 114 편			

결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최초의 의학 학술지인 조선의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곳에 실린 논문의 내용 및 저자들을 분석해 보았다. 서양에서 의학학술지가 등장하는 것은 의학이 근대성을 확보하게 된 19세기 들어서였다. 서양의학은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의학의 근대화 과정과 더불어 의학학술지도 초보적인 형태의 잡지에서 전문적인 학술지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의학학술지도 이와 유사한 과정 속에서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의학 지식과 방법에서 이미 근대성이 확보된 서양 근대의학을 도입하였지만, 의학교육제도 및 교육, 의사집단의 형성은 자체적인 근대화과정을

겪게 된다. 조선의보는 이러한 한국에서의 서양 의학 근대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전문적인 의학학술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한 조선의보는 당시 한국인 전문의학자집단과 비공식연구집단의 학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학술커뮤니케이션 장으로써 역할하였다.

참고문헌

- Bynum, W. F. et al. Medical journals and medical knowledge: historical essays. London : Routledge, 1992.
- Kronick, David A. Medical "publishing societies"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Bull Med Libr Assoc* 82(3), 277-282 pp. 1994.
- Osburn, Charles B. The place of the journal in the scholarly communications system.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315-324 pp. 1984. 12
- Price, Derek de Solla. 남태우·정준민 역. 과학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민음사, 1994.
- 강석영. 한국의학잡지약사. 일산 김두중 박사 회수기념 논문집. 서울 : 탐구당, 1966. 261-314 pp.
-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서울 : 아카데미아, 1995.
- 김형석. 한말 한국인에 의한 서양의학 수용. 국사관논총 5, 175-210 pp. 1989.
- 대한의학협회. 대한의학협회 85년사. 서울 : 대한의학협회, 1993.
- 여인석·이규창. 한성의사회에 대하여. *의사학* 1(1), 31-35 pp. 1992.
- 이충호. 한국 의사교육사연구. 서울 : 국학자료원, 1998.
- 전종휘. 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세기. 부산 : 인재연구장학재단, 1987.
- 황상익. 구한말 근대서양의학의 수용과정연구 (1). *의사학* 7(1), 13-22 pp. 1998.
- 황상익. 역사 속의 의학교. 의학교관제반포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 서울의대, 1999. 1-91 pp.